#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462 |
|---|---|

발의연월일: 2024. 12. .

발 의 자: 차인영·양송이·김지연
남완현·신흥식·우경란
이규선·이성수·이순우
임헌호·최봉희·최인순
유승용·정선희 의원
(14인)

## 1. 제안이유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신길뉴타운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24년이나 된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고 '신길재정비촉진지구'라는 과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근의 대규모 재개발과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 중학교 신설 및 인근 초등학교 과밀 등 현재의 실제 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평가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며,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실제 현황과는 동떨어진 부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장애를 유발함.

대기질 검사 과정의 경우 적정성 및 신뢰성 결여. 대기질 현장조사는 환기구 설치 예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시되어, 실제 환기구 설치 위치에서의 대기질을 측정하지 않았음. 대기질 검사는 환기구 설치 예정 지역에서 실시해야 하며,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측정해야 함. 이를 통해 실제 대기질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함.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하 100m 설계로 인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음. 이는 지하 터널 공사 시 지반 침하, 균열 등 다양한 안전 문제 유발 가능. 지질검사는 지하 터널 공사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를 통해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전략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또한, 환경평가협의회 영등포구청 심의위원의 의견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의 2023.11.28. 제출된 1)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중복으로 인해 보류하는 것이 타당 2)신길뉴타운 및 주택 밀집지역 배제 요망 3)용산-광명 노선 직선화 필요) 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거 변화 검토 없이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인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음. 이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림.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평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서는 완전하지 못함. 주거 변화 검토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 이에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영등포구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영등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영등포구의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가. 타당하고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영등포구 노선안에 반대함.

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실시된 대기질 측정 및 지질 검사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기구 설치를 즉각 철회해주기 바람.

다. 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영등포구 노선안 변경 및 환기구 설치를 철회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3. 결의안: “별첨”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신길뉴타운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도를 사용하여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대규모 재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 중학교와 초등학교 인근 등 현재의 주거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성이 부족하다.

셋째, 환기구 설치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측정해야 하는 대기질 검사를 환기구 설치 예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적정성 및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지질검사를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 2개의 위치에서 시행하여 영등포구 노선안에 대한 지질검사 미시행으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의 2023.11.28. 제출된 의견서 내용 (1)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중복으로 인해 보류하는 것이 타당 2)신길뉴타운 및 주택 밀집지역 배제 요망 3)용산-광명 노선 직선화 필요)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영등포구의회는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영등포구 노선안 및 환기구 설치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의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안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국토교통부의 노선 및 환기구 설치를 변경하여 주민 의견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